

동경의 이튿



최 수 권

- ☞ 문학세계 / 수필로 등단
- ☞ 카톨릭 문우회 회원
- ☞ 현대 수필가협회 이사
- ☞ 전자저널 컬럼니스트
- ☞ 저서 / 삶이 있는장터 (수필집)  
영원한 고향 (수필집)
- ☞ 현. 해태전자(주)  
국내 영업본부장

내가 눈을 떴을 땐 벌써 햇살이 방안 가득히 들어와 있었다.

나는 습관적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개운치 못한 기운이 온몸으로 덮쳐왔다. 이것은 잠이 부족하다는 나의 생리적인 반응인 것이다.

시간을 확인했다. 시계는 정확히 다섯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보다 한 시간을 먼저 기상한 것이다.

나를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카텐을 열었다. 유리알 같은 맑은 아침 공기가 시야로 들어왔다.

건너편 숲에서 까마귀 한 무리가 숲을 차오르면서 태너 섹스폰 같은 울음 소리를 창공으로 내뿜고 있었다. 그래서야 이곳이 東京이라는 사실을 떠 올렸다.

“까-악, 까-악”, 우악스런 소리로 아침을 열고 있는 까마귀 소리가 나를 잠에서 깨어나게 한 것이다.

어린시절 집 앞에서 까마귀가 울면 초상을 당하거나 불길한 일이 생긴다 하여 어머니는 까마귀만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쫓고 하셨다. 그리고 그런 시절을 지나온 나로서는 까마귀 울음이 좋게 받아들여 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東京 시내 중심가에서 그런 까마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내심은 없잖기도 하였으며 나의 의식에는 무언지 모를 불길함 같은 것이 움틀거리고 있었다. 새벽녘의 까마귀와의 상면은 그래서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까마귀 떼가 창문앞 나무에까지 날라와 앉았다. 나는 그놈들을 유심

히 관찰했다. 그놈들은 한국에서 봤던 까마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몸집들이었다. 그리고 부리도 달랐다. 매의 구부러진 주둥이를 닮았다. 그놈들은 개걸스럽게 생겼으며 까만 깃털들이 기름기가 자르르 흘러 보였다.

“빌어 먹을 놈들이 단잠을 깨워 놓다니” 혼자말로 중얼거리며 나는 또 잠자리에 들려고 침대에 누웠다.

까마귀들은 더욱 요란한 소리로 짓어대고 있었다. 마치 이방인의 잠자리를 방해 하듯이

나는 그 소리가 싫었다. 그 소리는 새 소리가 아닌 공해였다.

나는 침대 옆의 앰프를 켰다. 그리고 BGM에 맞췄다. 음악은 짜즈였다. 라틴음악이 가미된 모던 짜즈 음악이었다. 볼륨을 올리고 까마귀 소리가 나의 귀에서 사라지도록 했다. 조금은 나의 의식이 안정을 찾는 듯 했다.

마슈카와 만나기로 한 시간이 아직도 두 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이국에서 하일없이 멀뚱멀뚱 두시간을 지낸다는 것은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어느덧 깊은 잠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사람 크기만 한 까마귀가 연신 “하이” “하이”를 하며 내 앞에서 머리를 쫓는가 싶더니, 어제 저녁 어느 음식점에서 수발을 들던 기모노 차림의 여자로 금세 변하여 술을 권하기도 하며 일본 여자의 특유하고 상냥한 미소로 술을 권하며 따라주기도 하였다. 그러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금세 까마귀로 변하기도 하다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그러다가 어느새 많은 무리의 까마귀가 몰

려와 “까-악” “까-악”하며 나를 괴롭히기도 하였다.

“빌어먹을 일본 까마귀야”하며 소리를 치며 팔을 흔들려 하였지만 팔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꿈이었다. 까마귀들은 잠속에서도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나는 선잠 속에서 어설피레 차임벨 소리가 들렸다. 현관 문을 열었다.

마슈카가 함박 웃음을 띄고 들어왔다.

“동경에서의 이틀째, 편안 하 셴습니까?” 마슈카는 놀랜듯이 물어 왔다.

“글쎄, 저놈의 까마귀 소리...” 하며 창 너머를 가르켰다.

“동경시내에 까마귀가 있을 줄은 상상못했지요.”

“세도 세 나름이지...” 나는 통명스럽게 마슈카에게 짜증을 냈다.

“동경은 사람 살 만한 도시지요. 저렇게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아닙니까?”

“행복이요,”

“동경은 숲과 새가 있는 도시 아닙니까?”

“마슈카상, 숲은 좋아요. 그러나 저놈의 소리가 새소리입니까. 저것은 음정이 맞지 않는 엉터리 악기 소리지요”

“괜한 짜증내지 마십시오. 저 소리에 익숙해지면 아름다운 새 소리로 받아들여 질것입니다.”

저 소리를 며칠 더 듣다간 아마 내 정신이 이상해져 버릴 것입니다.”

나는 며칠간을 저 소리와 생활한다는 상상을 하자 머리 끝이 쭈뼛 해졌다. 그리고 빨리 출장

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앞서왔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왜 저 까마귀 소리가 거슬리지 않고 자연의 소리로 받아 들여 질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졌다.

“마슈카 상, 저 소리가 진짜로 듣기 좋습니까?”

“저 소리가 어때서요.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함께 한 걸요.”

“그래요,”

하기사 나면서부터 가까이 접할 수 있었기에 아무런 거부감을 갖을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저 단조롭고 통명한 소리가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가질 않았다.

“마슈카 상, 까치라는 새 알고 있습니까?”

“알다마다요. 까마귀와 비슷한데 흰색 깃털이 더 많지요, 그리고 유난히 꼬리를 흔드는 새 아닙니까?”

“맞아요, 그 새울음 소리 들어 보셨는지요.”

“들을 기회는 없었지만 소리가 까마귀와 비슷할 것 같네요.”

“천만에요, 그 소리는 명쾌하고 음색이 곱고 깔끔하지요”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네요.”

“언제 한국 오실 기회가 있으면 꼭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지요.”

마슈카는 까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길조라는 호칭을 받고 있으며 서민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까마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고한 동작과 울음 소리로 알고 알려졌다.

“아! 그 까치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새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일본에 번식 시키기 위해서 까치를 한국에서 들여 왔는데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실패 했을까요.”

“아아, 일본 까마귀가 그 까치들을 다 잡아 먹었다는 풍문이 돌리던데요.”

“뭐요, 까마귀가 우리 까치를” 나는 자신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글쎄, 저도 확인한 것은 아니라 단정할 수 없지만, 사실인듯한데요.”

마슈카는 시뻘지도 않게 대답했다.

나는 지금 마슈카가 하고 있는 말이 일본 국민들 사이에 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 사람들 보다는 훨씬 쉼야하며, 또한 보잘것 없는 동물일지라도 자기 영토에서 자란 놈이 한국산 보다는 강해야 한다는 우월감이 그들의 의식에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이다.

“마슈카, 그게 사실일까요.”

“그런 것이 우리 사이에 별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서야 별것도 아닌 것에 신경을 썼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잠을 잘 자지 못해 헛소릴 했나 봅니다.”

“까마귀가 잠을 설치게 했다면 일본 까마귀를 대신해서 사과드리지요”하면서 마슈카 상은 턱수염을 두어번 만지더니 몇차

레 머리를 조아렸다. 나는 그 모습이 하도 우스워 배를 잡고 웃었다.

“마슈카 상, 일본 사람들은 너무 굽실거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릴때부터 보고듣고 교육받은 언행인 걸요”하며 도리어 나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고개를 가우뚱 한다.

“한국 사람들도 예의 바르고 친절하지만 일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 인지 지적해 보시죠.”

“한국 사람의 정서는 너무 정적인것 같아요. 그런 반면 우리는 정적인것과 동적인 언행을 스스로 없이 발산하는 것이지요.” 그건 마슈카 상이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일본인 누구를 만나든 그들은 언제나 허리굽혀 몇 차례씩 인사하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한 이해관계를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테면 허허실실의 용병술 처럼 말이다. 그들의 상술이 어느 정도인가는 세계인들이면 모두가 잘 알고 있기도 하다.

동경 타워에 가보면 그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각층마다 기념품 코너와 오락시설이 산재되어 있다.

마슈카 상은 이렇게 질문해 왔다.

“서울 남산타워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가 봤지요.”

“무얼 느꼈습니까?”

“글쎄...”

“한국인들에게는 상인정신, 즉

프로페셔널한 정신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무슨 얘기인지?”

“남산타워는 단순한 관광 코스이지 장사속 같은 것은 아예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어때서요.”

“분위기에 걸맞는 기념품도 없고, 가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던가요.”

마슈카는 내가 보지 못했던 것까지 지적하고 있었다. 나는 일리있는 얘기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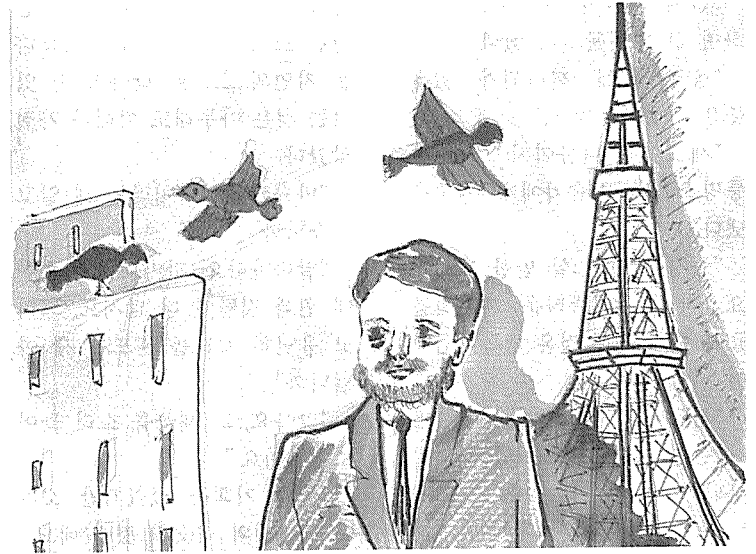
동경 타워는 전망대에 올라서면 두어개 층에 기념품 가게와

스넥코너가 있고 아랫층의 4층까지는 기념품과 오락시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속말로 관광객의 주머니를 끝없이 공략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른다.

“자, 우리 부질없는 싸움은 그만두고 식사나 하러가지요.”

마슈카 상은 나를 몰아세워 호텔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은 한산했다. 서울의 호텔과는 판이하게 다른 분위기였다. 식사는 일식부페로 했다. 조금은 니키한 맛이었지만 그렇게 거북스럽지는 않았다.



호텔 종업원은 모두 어떤 여자들이었다. 기모노 차림의 여자가 세명, 원피스 차림의 여자 종업원이 한명이었다. 모두가 바빠 움직이며 익숙한 숨씨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미소를 가득히 머금고 상냥한 인상들이었다.

“마슈카, 나는 저 일본 여자들의 미소가 정말 싫소 마치 해본 여자들 웃음 같아보여”

“그것도 문화와 정서가 다른 이방인이 평가한 편견일 것입니다.”

“너무 상냥해 싫다는 거요, 당신들의 그 미소가 오늘의 경제적인 부의 축적을 얻게 됐다는 것에 관한 심술인 줄도 모르지만”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갖는 편한 성깔일 수도 있습니다.”

“저창하게 민족이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갖은 솔직한 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내가 아는 한국사람들은 당신과 똑같은 말을 많이 하던데요. 그것은 패배주의적인 사고입니다.”

“물론 그럴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오기스런 감정을 털어 버릴 수 있는 자세만 있다면 오늘의 일본과 같은 경제적인 향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슈카, 당신은 일본의 역사를 잘 알고 있겠지요.”

“그럼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는 열간이로 보이시오.”

좋아요, 오늘의 일본문화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보십니까.”

나는 약간은 감정적인 질문을 했다. 그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질문이기도 한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세계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변화하지만 그 근본은 언제나 역사의 핵으로 전수되기 마련이지요.”

나는 일본인으로 또 한사람의 기업가로, 언제나 오늘과 내일을 소중히 합니다. 물론 지난 과거가 오늘을 탄생시킨 것이지만” 마슈카는 사뭇 심각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진지하게 말을 하고 있었다. 턱수염이 유난히 새까맣

게 보였다.

창문 밖에서는 언제 날아왔는지 몇 마리의 까마귀가 시끄럽게 울어 재기고 있었다.

나는 그 놈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나는 그놈들의 울음 소리가 “하이”, “하이”로 들려지고 있었다.

유난히 날개짓을 하던놈이 동료 까마귀에게 장난질을 하고 있었다. 머리를 슬쩍 쪼아려 보기도 하는가 싶더니만 비상할 듯한 날개짓을 하다가 등에 올라 타 보기도 한다. 그리고 두마리가 어울려 창공으로 비상해 가고 있었다.

다른 녀석들도 뒤따라 건너 숲으로 날아가 버렸다. 식당안 일본인들이 모두가 그것을 한참을 쳐다보더니 넉넉한 웃음을 머금고 식사에 열중이었다.

마슈카도 하얀 이를 들어 내놓고 웃고 있었다.

우에노 국립공원 안에는 박물관이 있다. 그곳 한국전시관에 들렀을 때 마슈카상은 전시관 입구의 안내판으로 나를 안내하였다.

“당신이 답을 받고 싶어 하는 일본문화의 뿌리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쌀이 유입됐듯이 일본문화는 한반도에서부터 흘러왔으며……

마슈카 상은 일본문화의 근원

은 한국이라고 스스로없이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는 곧 백제, 신라 등에서 들어왔으며 자신들은 아주 독자적인 문화를 창건했다고 덧붙혔다.

마슈카 상은 한국가요가 자신의 감정에 꼭 맞는다고 자신의 노래 실력을 자랑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 한국 노래를 잘 불렀다. 특히 칠갑산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했다.

자신의 핏속에는 한국 피가 흐를지도 모른다고 충청도 칠갑산을 방문했다고 한다.

우에노 공원을 나오면서 노점상을 하는 많은 서양인들을 보았다.

“이곳 노점상들중 한국인은 아마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하며 마슈카 상은 그래도 한국인의 현위치에 대한 평가를 높이하고 있었다.

우에노 공원의 고색창연한 건물과 아름답다가 어우러진 숲사이를 걸으며 나는 마슈카의 어깨를 껴안았다.

공원 벤치에는 많은 거지떼들이 이불을 깔고 누워 있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곳에 눈을 주지 않았다.

동경에서의 이들은 그렇게 지나고 있었다. 우에노 공원 숲사이에든 까마귀는 요란한 웃음소리를 내뿜고 있었다.